



# 행복한 용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2020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성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C CONTENTS

## 03 인사말

### 한눈에 보는 용산SE

- 04 용산SE 인포그래픽
- 18 용산SE 2차년 사업 하이라이트
- 26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전문가 간담회

### 테마로 보는 용산SE

#### 테마1. Network

- 36 네트워크 구축
- 40 지역사회 돌봄
- 44 건강 먹거리
- 47 교육

#### 테마2. Agenda

- 52 여성 리더
- 55 혁신·창의기업
- 58 SE공간

#### 테마3. Platform

- 65 센터공간
- 71 주민기술학교
- 75 공동판매장
- 76 용산사경센터 소개
- 78 용산구 사회적경제 DB

---

# 여는글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차년(2020. 07. ~ 2021. 06.)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차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용산의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차년의 시간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가고자 더욱 연대하고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행했던 사업들과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2021년 7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3차년 사업을 시작합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다시 뒹뒹합니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일동**

# 한눈에 보는 용산SE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에는 15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주체 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행복한 용산을  
꿈꾸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용산구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미래 진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2016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1년차

2017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2년차

2018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3년차



2020  
~2021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센터 2년차

- 2020. 07. 29.
- 2020. 08. ~ 12.
- 2020. 08. ~ 12.
- 2020. 08. 20.
- 2020. 08. 26.
- 2020. 09. 01. ~ 2019. 12. 15.
- 2020. 09. 01. ~ 2020. 12. 20.
- 2020. 09. 01. ~ 2020. 12. 31.
- 2020. 10. ~ 12.
- 2020. 10. ~ 11.
- 2020. 11. 17.
- 2020. 12. 14.
- 2020. 12. 15. ~
- 2020. 12. 18.
- 2021. 02. 22. ~ 2021. 02. 25.
- 2021. 02. 15. ~ 2021. 03. 05.
- 2021. 03. 26. ~ 2021. 03. 31.
- 2021. 03. 30.
- 2021. 04. 01. ~ 2021. 05. 31.
- 2021. 04. 13. ~ 2021. 04. 30.
- 2021. 04. 15.
- 2021. 04. 22. ~ 2021. 05. 05.
- 2021. 05. 12. ~ 2021. 05. 13.
- 2021. 05. 26. ~ 2021. 05. 27.
- 2021. 06. 08.
- 2021. 06. 25.
- 2021. 06. 28.
-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 자장면데이
- 2020 용산구 주민기술학교 운영 (정리수납, 반려견 돌봄 활동가 양성 과정)
-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 SE아카데미 - 사업계획서 작성법
- SE아카데미2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홍보 영상 제작
- 연구용역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서 서비스 - 온라인장터 운영
- 2020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
- 2020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설명회 및 컨설팅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구축
- 성인지 감수성 교육
- SE아카데미-사업제안서 작성법, 사회적경제기업 적정 세무와 회계 교육
-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보구축사업
- 주민기술학교 특강-정리수납 교육
-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리더십 포럼
-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크라우드펀딩 추진
- 용산구 교육기업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운영
- 협동조합 설립 교육
-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교육
- 용산구 교육기업 네트워크 워크숍
-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자원조사
- 협동조합 설립 교육 - 정관작성편

2019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센터 1년차

- 2019. 03. 15. ~ 2019. 06. 30.
- 2019. 03. 15. ~ 2019. 11. 30.
- 2019. 03. 27. ~ 2019. 12. 26.
- 2019. 04. 01. ~ 2019. 09. 30.
- 2019. 04. 10. ~ 2019. 09. 30.
- 2019. 09. 01. ~ 2019. 12. 31.
- 2019. 10. 02.
- 2019. 11. 05. ~ 2019. 11. 29.
- 2019. 11. 28. ~ 2019. 12. 04.
- 2019. 12. 09.
- 2019 의제네트워크 돌봄 - 치매인지향상프로그램
- 2019 의제네트워크 시니어 -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
- 용산사회적경제기업 팟캐스트 제작 (안녕하SE 용산)
- 용산사회적경제기업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 어린이 안전먹거리 및 마을 교육인큐베이팅
- 2019 사경센터 동료컨설팅사업
- 2019 용산구 마을자치박람회 참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 2019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 맞춤형 밀착컨설팅운영
- 용산사회적경제 홍보 전시부스 운영
- 2019 용산구 사회적경제종사자 협력네트워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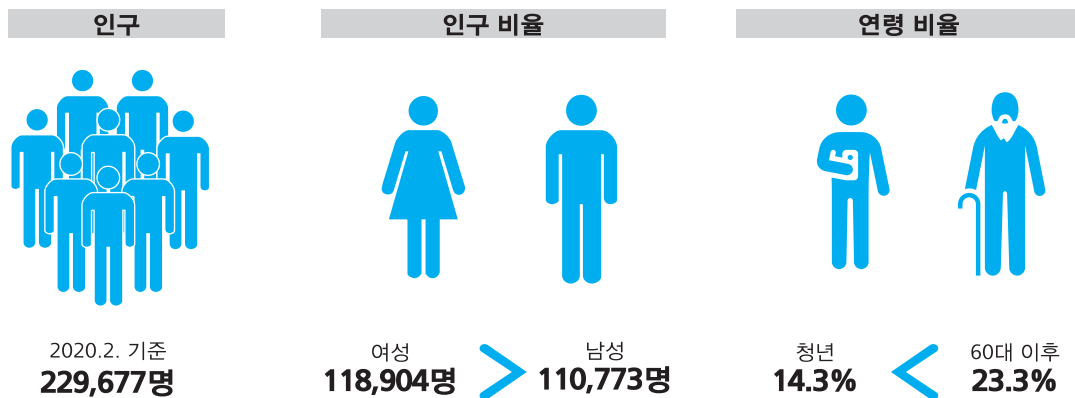
# 01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 자치구 일반적 특성

###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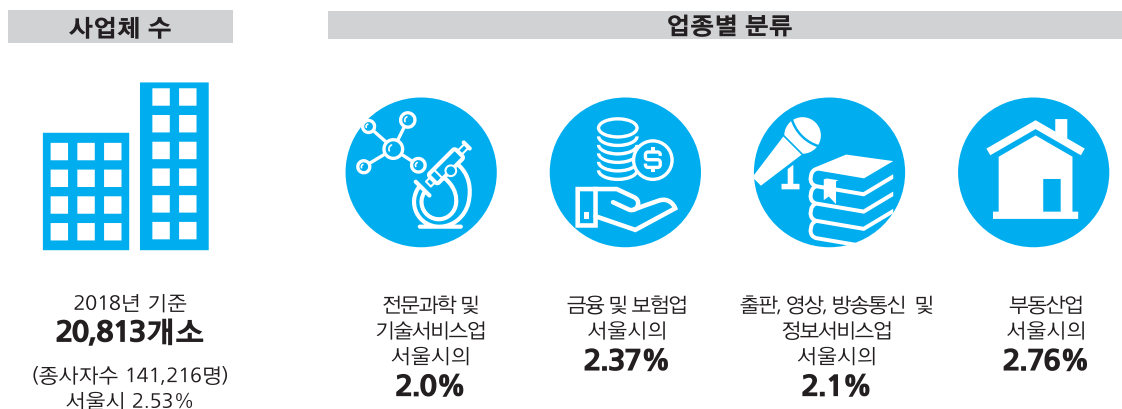
- 인구**
  - 109,692세대, 229,677명(2020.02)
  - 남자 110,773명, 여자 118,904명
  - 20대 인구비율 14.3%, 60대 이후 23.3%
- 지리**
  - 동서간 4.09km, 남북간 4.37km
- 행정 구역**
  - 16개 행정동
  - 면적 21.87km<sup>2</sup>(서울시의 3.61%)
- 재정**
  - 총 예산 규모 5,717억원
  - 일반회계 : 4,720억원
  - 특별회계 : 854억원
  - 기금 : 613억원



-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경제 및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 남산을 경계로 6개 자치구와 접하고 있으며 한강을 잇는 대교 중 6개의 한강대교와 경부철도, 지하철 1·4·6호선 경의중앙선이 연결되어 교통의 편의가 뛰어남.
-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한강시민공원 등 도심공원이 많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휴식 공간이 많음. 또한 미 8군 기지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 공관저와 문화원, 이태원관광특구 등이 있어 타지역에 비해 특히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임

- 고속철도의 중앙 역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용산역과 첨단 전자산업의 중심인 용산전자상가 및 시청사 용산 이전, 한강로 일대의 국제정보·행정업무 중심지구로의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서울을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으로 크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0년 2월 기준 전체 인구는 229,677명으로 서울시에서 3번째로 인구수가 적은 편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및 용산역, 한남동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당분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구조는 여성 118,904명, 남성 110,773명으로 여성이 51.7%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이 14.3%로 낮고 60대 이후가 23.3%로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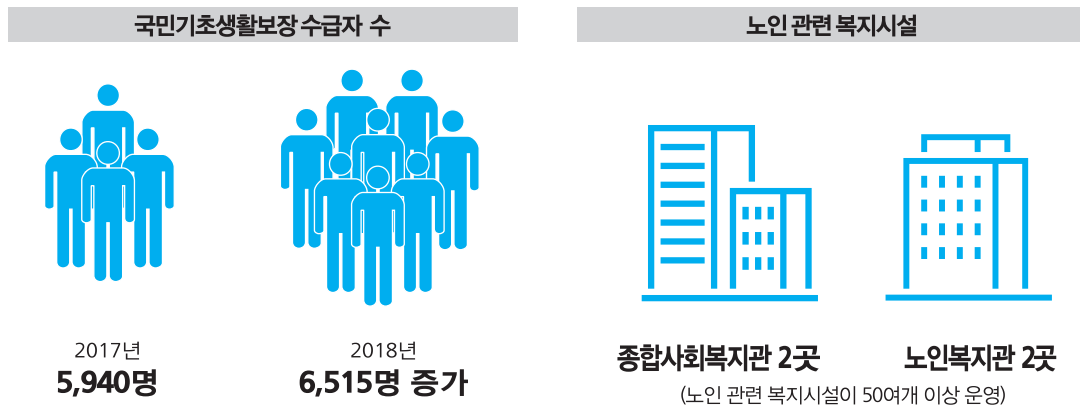
## 2) 산업 경제



- 최근 용산구는 대기업들의 사옥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재탄생하고 있음. LG유플러스, LS전선, 현대산업개발, CJ,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입주함.
-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20,813개소(종사자 수 141,216명)로 비율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할 때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서울시의 2.0%), '금융 및 보험업'(서울시의 2.37%)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서울시의 2.1%), '부동산업'(서울시의 2.76%)로 나타남.
- 행정지역으로 보면 원효로동과 한강로동에 IT관련 소규모 도소매 업체와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별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31,093명으로 제일 많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9,474명,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종사하고 있음.
- 용산구 노동시장 구조가 비정규 계약직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층 및 전문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영역 다양화(교육, 문화, 공유경제, 출판 등) 및 새로운 사업 운영 방식으로 청년의 창업·고용 증가 추세, 따라서 청년 조직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청년 취·창업 연계 지원 필요. (2018, 서울연구원,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실태와 청년일자리

### 3) 사회보장 및 복지시설



- 용산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7년 5,940명에서 2018년 6,5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 세분화된 수급 대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보육·돌봄·교육 등 복지 자원의 확대가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 2곳, 노인복지관 2곳, 노인 관련 복지시설이 5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음.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비롯하여 대한노인회 지역본부가 용산구에 있어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양한 연계사업을 강구 할 수 있음.

## 02 |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자치구 사회적경제 일반 현황

### 1) 사회적경제 현황

-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2021년 1월 기준 총 150개(100.0)이며, 일반협동조합 66% > 사회적기업 23%(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2개)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4% 순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이 많은 자치구임(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분석 및 주요 성과연구 참고).



2021년 1월 기준  
총 150개



(예비)사회적기업  
35개  
(우수사회적기업 2개)



마을기업  
7개



일반협동조합  
99개



사회적협동조합  
7개



자활기업  
2개

-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 중 중복지정 현황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받은 조직은 6개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조직은 5개임.
-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에 따른 업종 현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여 <표 1-1>과 같으며, 교육업(22%), 도소매업(14.8%), 제조업(12.7%) 순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됨.

전체	A 농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E 폐기물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J 출판	K 금융
142(100.0) *중복기업제외	2(1.4)	0(0.0)	18(12.7)	1(0.7)	1(0.7)	5(3.5)	21(14.8)	3(2.1)	10(7.0)	11(7.7)	0(0.0)
	L 부동산	M 전문기술	N 시설관리	O 공공행정	P 교육	Q 보건	R 예술	S 단체	T 자가소비	U 국제	
	3(2.1)	11(7.7)	7(4.9)	4(2.8)	22(15.5)	6(4.2)	7(4.9)	9(6.3)	1(0.7)	0(0.0)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의 경우 일자리 제공형, 창의·혁신형이 높으며, 협동조합 설립유형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순으로 나타남.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등을 거치며 용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양적 확대는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매우 우수하며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특성상 규모화된 제조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중은 낮지만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기업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타지역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음. 또한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등 업종별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역량이 우수함. 초기 우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기업을 비롯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기업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성장추세를 보임. 사업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타 지자체 등에도 주목을 받고 있음.
- 협동조합의 주체도 다양해지고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설립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노숙자 일자리 연계,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법인이 2019년 해산되었으나 이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네트워크가 별도로 구성되고, 현재는 의제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2차년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가 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받고 운영 중이며 2016년부터 시작된 생태계조성 사업, 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확장을 통해 주체 중심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더불어 1년간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다수의 조직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구축하고 의제별로 구체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있음.
- 현재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기업 간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판매장, 공동 교육, 다회용기 도시락 제작 등 협업사업들이 발굴 확대되고 있음.

### [용산구 사회적경제 분야별 주요 네트워크 현황]

분야	네트워크	참여 기업(단체) 및 세부내용	기업 수
돌봄	돌봄 네트워크 (17.10.~)	<p>- 용산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행복중심 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자활기업 더플랜트, 후암밥상(지역관리기업),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서울로마을목공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트래쉬버스터즈, 사회적기업 (주)숲푸드, 사회적기업 (주)두근두근, 사회적기업 (주)송지</p> <p>2020년부터 돌봄SOS 사업 참여 중. 식사지원, 일시재가, 세탁, 주거편의, 정서지원 등 서비스 수행 중</p>	11개 기업, 1개 기관
교육 문화	혁신교육 네트워크 (17.2.~)	<p>-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드림트리빌리지, 성심학교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체험팩토리, 다사리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적기업 (주)두근두근, 사회적기업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톡투미다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갭이어, 용산교육복지센터</p> <p>현재 개별적으로 용산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 중. 21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p>	10개 기업, 1개 기관
복지	복지 네트워크 (16.3.~)	<p>- 아름다운가게숙대입구역점, 동자동사랑방(민간단체), 행복중심용산생협, 사회적기업 드림트리빌리지, 고래이야기(민간단체)</p> <p>연1회 아름다운하루 행사 수익금 :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동자동 쪽방촌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청소년 장학금 지원함. 주관기관, 배분 대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제 발굴 중 연 1회 행사를 3~4회로 확대 논의 중</p>	3개 기업, 2개 단체

분야	네트워크	참여 기업(단체) 및 세부내용	기업 수
도시 재생	도시재생 네트워크 (17.11~)	-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어시스타,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서울로마음목공협동조합, 해방촌도시재생지원센터  해방촌 도시재생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교육 및 주거재생 등 공동사업 논의 중	4개 기업, 1개 기관
마을 공동체	마을협력 네트워크 (17. 5~)	- 용산마을센터, 용산교육복지센터, 용산찾동추진지원단, 용산지역자활센터,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용산구 보육반장, 해방촌도시재생지원센터 -17년 11월 네트워크 협력 워크숍 추진성과	8개 기관
마을 기업	마을기업 네트워크 (20.7~)	- 행복중심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단꿈한지공방,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마을기업 사업 공유, 공통 교육(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공동체 강화, 고도화 진입을 위한 피어컨설팅 등 추진	5개 기업
판로 개척	공동판매장 네트워크 (20.7~)	- 행복중심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단꿈한지공방, 해방촌니트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29일,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더플랜트, 사회적기업 두시공예협동조합  공동판매장운영 및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개척 모색	9개 기업

### 3)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공감 현황

- 용산구는 최근 주민기술학교, 돌봄SOS 사업,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 컨퍼런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 설립을 위한 상담, 컨설팅이 월 3회 이상 연계되고 있으며 실제 설립으로 연결되는 주민 조직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역사회 밀착 돌봄서비스와 캠페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킴.
- 특히 주민기술학교의 경우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향후 지역 관리 기업으로서의 설립 의지가 매우 강함.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을 받고 있음.

# 03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 성과

### 1)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 사업기간: 2017. 2월 ~ 2017. 6월
  - 위 치: 용산구 독서당로46 한남 아이파크 지하 1층
  - 규 모: 전용면적 576.73m<sup>2</sup>
  - 내 용: 사회적기업 업무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 2)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8. 03. 02)

- 제정 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 3) 자치 단체장의 사회적경제 공약: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 4)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결과(2020년도)

- 2020년 현황조사로 30여 개소 응답 기업대상

#### [운영 현황]

시작단계 기업



2개

생존단계 기업



18개

성장단계 기업



7개

성숙단계 기업



3개

위기단계 기업



0개



### [매출액]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10	10	7	7	3	2	1	2

### [영업 이익]

구분	1억 이상 ~ 0원 미만		0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6	5	15	15	0	1

### [총 근로자 수]

구분	0명 ~ 1명	3명 이상 ~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 100명 미만
업체수	6	8	4	3	1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구분	0명 ~ 1명	2명 이상 ~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업체수	15	3	1	3

## 5) 용산구 사회적경제 최근 1년간 상호거래 실적

- 실적 기간: 2020. 1. ~ 2020. 12. (1년간)
- 실적 금액: 66,251,396원
- 총 구매건수: 24건

### 용산구 사회적경제 최근 1년간 상호거래 실적



실적금액  
**66,251,396원**



총 구매건수  
**24건**

# 04 |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 1)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서비스 홍보 및 우선구매 지원 (홍보물 등 제작)
- 소요예산 : 300,900천원(국비 13%, 시비 53%, 구비 34%)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적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합동평가 및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적제고



소요예산 비율



## 2)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사업내용 :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신규 50,000천원 이내, 연장(2년차) 30,000천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 : 8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기대효과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
  -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소요예산 비율



---

### 3)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공적영역 확대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지속 추진 : 2019. 1월~
- 용산구청 공공구매 담당자 간담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행사 추진
-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2020년 용산구청 세입세출 예산서 분석, 제공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내 공공서비스 시장 적용 분야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공헌사업 실적조사 상, 하반기

### 4) 사회적경제 통합 상담 및 교육, 인큐베이팅, 밀착 컨설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상담, 교육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상담, 인큐베이팅
- 협동조합 설립 상담, 인큐베이팅
- 행정자치부,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 상담 및 인큐베이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 컨설팅
-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경영, 운영 정상화 컨설팅
- 사회투자기금, 정부 기금 등 자원 연계
- 지원 인력 풀 구성 : 밀착 컨설팅, 선배 컨설팅 등

### 5) 사회적경제 DB 구축 및 모니터링,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지역 사회적경제 DB 구축 및 공유
- 상호거래 실적 조사(상, 하반기 2회 실시)
- 관내 유입, 신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체 탐방
- 지속적 자원, 수요조사
- 광역 또는 권역 연계 전략사업 및 효율화
- 민민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민관 네트워크 정례화 운영
- 전략 이슈별, 주체별 네트워크 다양화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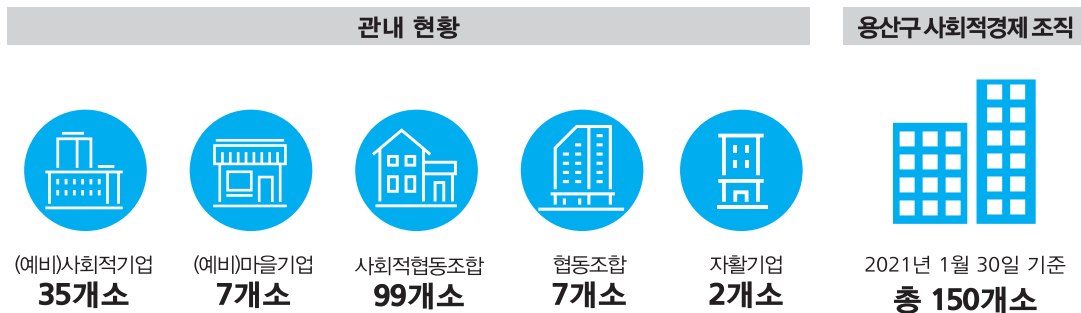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 용산구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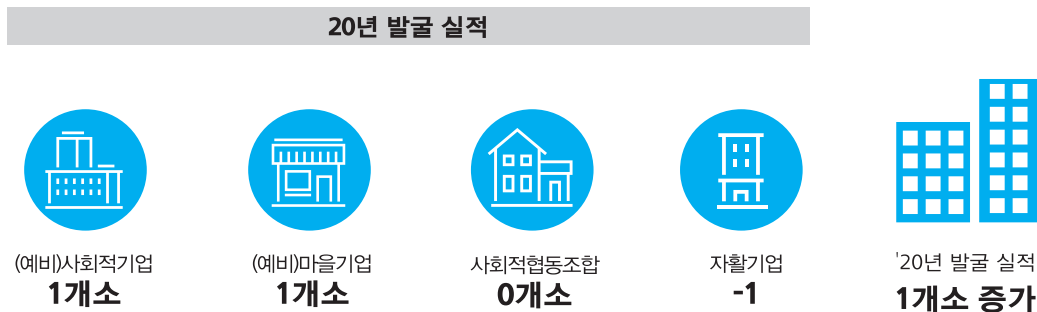
### 1)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인 발굴

#### (1)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 협동조합 기본법
-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20년 발굴 실적 : 1개소 증가



- 추진방안 : 인건비 · 사업개발비 지원, 홍보전시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

## (2) 제2회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창업 아카데미

- 사업목적 : 2018년도 실시한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10명의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강사 일자리 창출(일부는 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강사로 활동 중) 사례를 지속해서 이어가고자, '제2회 용산구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지속 사업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안 : 통합지원사업 중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
- 모집대상 : 경력단절 여성(여성발전센터) 또는 중년 일자리 (50플러스센터 또는 관내 사회적기업 (주)상상우리)관련 추천 10~15명

## 2) 자치구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

- 지역 의제 도출 및 지역 사회적경제 특화전략 고도화
- 생태계 조성사업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확산전략 수립
-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조직 개발 및 시민 체감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전략 수립
-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킹 및 협업전략 수립
- 사회적경제 외연 확대, 범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전략 수립

# 06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 용산SE2차년 사업 하이라이트



2020. 07. 29.

###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 자장면데이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2년차를 시작하면서 입주기업 대표님들 종사자들 센터직원들이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 08. ~ 2020. 12.

### 2020 용산구 주민기술학교 운영 (정리수납, 반려견 돌봄 활동가 양성 과정)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주민기술학교 사업!

정리수납 전문가, 반려견 돌봄활동가 양성과정으로 나뉘어서 운영된 본 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20. 08. ~ 2020. 12.

###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코로나 19로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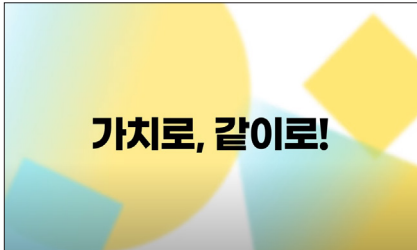




2020. 08. 20. ~ 2020. 08. 26.

### SE아카데미 - 사업계획서 작성법 /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마케팅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0. 09. 01. ~ 2020. 12. 15.

###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홍보 영상 제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소개하는 2020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홍보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용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수해 극복  
온라인 장터**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통해 가치를 같이 응원해주세요!

운영기간 : 2020년 9월 11일 ~ 9월 25일  
구매방법 : 물론 서비스, 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직접 연락

**행복플러스용산소비자립동조합**  
문의 : 02-713-0615

<b>실속공예산물세트</b> (가정용) 5000원 53,500원	<b>유기농석류산물세트</b> (가정용) 5000원 55,100원
<b>용산맥기스30팩</b> (가정용) 45,900원 48,900원	<b>고등어세트</b> (가정용) 35,000원 38,000원

**오피스매카**  
문의 : 070-4633-0590

<b>위생용품세트 (S 또는 M)</b> +선물박스 구성 34,900원	<b>위생용품세트 (L 또는 XL)</b> +구급함 구성 40,900원
<b>위생용품세트 (S 또는 M)</b> +구급함 구성 43,900원	

\*KF94 → KF80으로 구성도 가능하며 필터유지 소스체계별의 수량을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9. 01. ~ 2020. 12. 31.

###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서비스-온라인장터 운영

추석을 맞아 수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한 추석맞이 온라인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2020. 09. 01. ~ 2020. 12. 20.

### 연구용역-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약 20개의 기업과의 인터뷰, 용산구 청과의 인터뷰, FGI를 통해 용산구만의 네트워크 활성화 맞춤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 10. ~ 2020. 12.

### 2020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및 골목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경영 악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배송 및 민간시장 개척과 지역 소상공인 연계를 위해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 10. ~ 2020. 11.

### 2020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용산구 사회적경제 리더들을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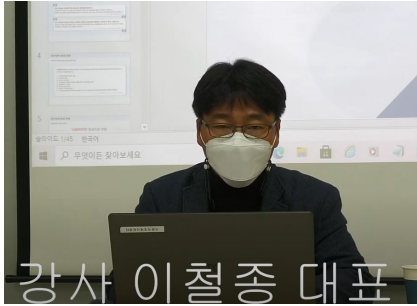


2020. 11. 17.

###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하는 네트워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 12. 14.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설명회 및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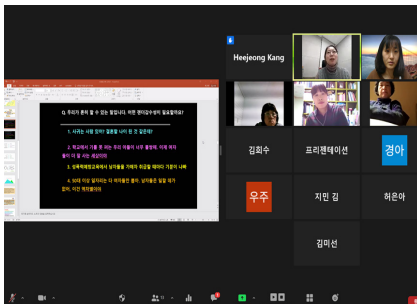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0. 12. 15.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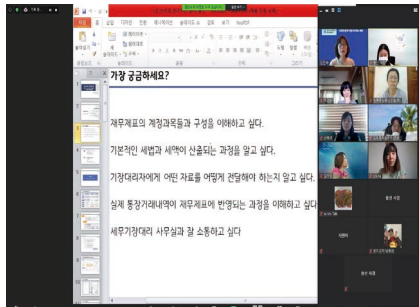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행복중심 용산생협 효창점에 공동판매장을 구축했습니다.



2020. 12. 18.

### 성인지 감수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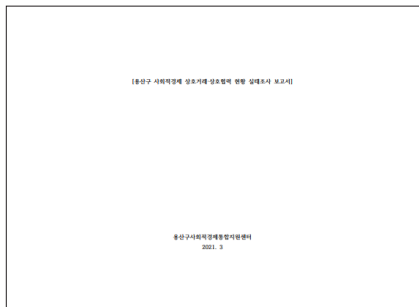
센터와 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와 성인지 감수성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배울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 02. 22. ~ 2021. 02. 25.

### SE아카데미-사업제안서 작성법, 사회적경제기업 적정 세무와 회계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사업제안서 작성법과 세무 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1. 02. 15. ~ 2021. 03. 05.

###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보구축사업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를 조사했습니다.



2021. 03. 26. ~ 2021. 03. 31.

### 주민기술학교 특강-정리수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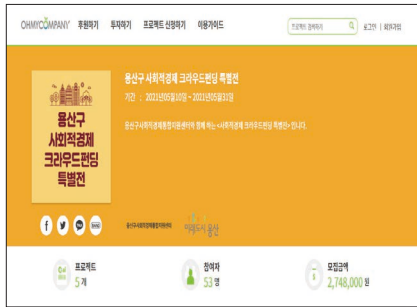
2020년 주민기술학교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교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021. 03. 30.

###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리더십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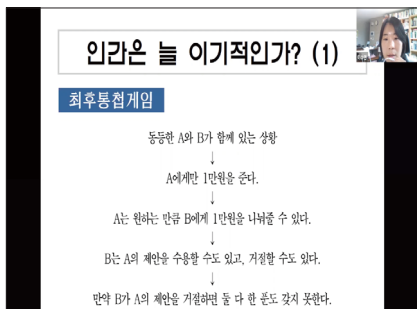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여성리더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04. 01. ~ 2021. 05. 31.

###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클라우드펀딩 추진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오마이컴퍼니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2021. 04. 13. ~ 2021. 04. 30.

### 용산구 교육기업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용산구 교육기업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04. 15.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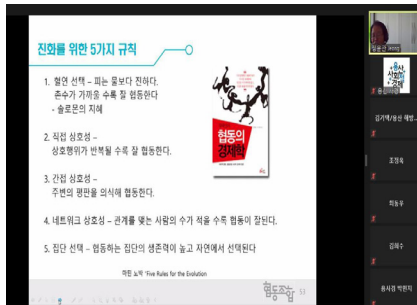
행복중심 용산생협의 위치한 공동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 04. 22. ~ 2021. 05. 05.

###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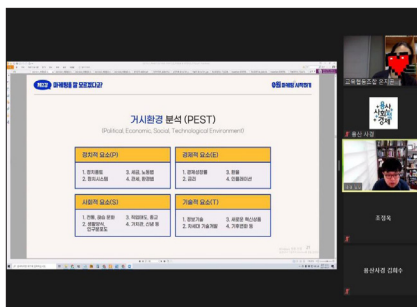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센터에서 창동 하나로마트 땡큐공감 프리마켓 특별전 기업참가를 지원했습니다.



2021. 05. 12. ~ 2021. 05. 13.

### 협동조합 설립 교육

용산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교육했습니다.



2021. 05. 26. ~ 2021. 05. 27.

###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마케팅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 06. 08.

### 용산구 교육기업 네트워크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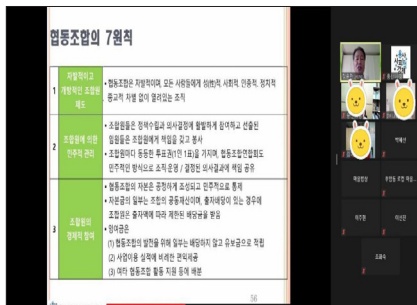
용산구 교육네트워크 참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타구(금천구)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06. 25.

### 용산구 사회경제적 지역사회 자원조사

용산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용산구 지역의 현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06. 28.

### 협동조합 설립 교육 - 정관작성편

5월 진행된 협동조합 설립교육 2탄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정관작성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 07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전문가 간담회

### 네트워크 첫발 내딛어, 연대할 수 있는 판 확장해야

현재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150개에 달한다. 용산구는 2014년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팀을 두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2019년에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용산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해왔다. 용산센터에서는 3차년도 운영을 앞두고,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자 용산센터 7명 운영위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4명(김미선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이사장(센터 위탁법인), 신민정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황혜원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정옥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온라인 줌을 통해, 2명(이성교 드림트리빌리지 대표, 정진성 어시스타 대표)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해왔다.

####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선

지역에서 돌봄사업을 하며 성장해온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이사장이자, 용산센터 위탁법인 대표기도 합니다.

용산지역의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민정



황혜원

용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여행 운영 등 마을의 역사학을 만들고자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용산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조정옥



정진성

어시스타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시스타는 2011년부터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공간(Space)이 함께 할 방법을 연구·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업인 드림트리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상물 제작, 행사 기획, 기자재 대여, 실용음악 교육입니다.



이성교

**2차년도(2020. 7~2021. 6) 사업이 마무리되고, 3차년도(2021. 7~2022. 6)를 준비 중인 시점입니다. 2차년도  
용산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용산 사회적경제 현황을 진단해 본다면?**



조정옥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년도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면 2021년 1월 기준 용산지역에는 15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일반협동조합(66%), 사회적기업(23%),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4%) 순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이 많은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업(22%), 도소매업(14.8%), 제조업(12.7%) 순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등을 거치며 매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양적 확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등 업종별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기업들의 유입도 늘어나고 성장 추세를 보입니다. 더불어 노숙자 일자리 연계,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설립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게어가 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받기 시작한 2차년도에는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등 업종별·분야별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구축하고 의제별로 구체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있으며,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기업 간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판매장, 공동 교육, 다회용기 도시락 제작 등 협업사업들이 발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행복중심용산생협에 공동판매장을 구축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했으며, 3차년도에도 협동조합 운영 카페에 공동판매장 2호점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민정

작년에 새로운 위탁법인이 들어서고 용산센터가 새로운 주체들로 운영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네트워크가 활발했어요. 업종별 협업도 이루어지는 등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달라졌죠. 코로나19로 여러 사업이 위축되었지만, 네트워크는 3차년도에 더 확장될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황혜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분야별·업종별 네트워크가 활발했어요. 지역의 기업들 간에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한거죠.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 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작지만 생협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을 구축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시도라 여겨집니다.





정진성

약 10년간 용산구에서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하며 느낀 것은 용산구 사회적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즉, 사람들 관심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이 개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센터 관계자들을 보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용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성교

사무국의 변화로 참여기업들이 다양해지고 이전보다 밝고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져요. 기업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는 연대와 사업 기회가 많아진다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선

작년 이맘때는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용산센터 위탁이 결정되고 걱정이 많았어요. 용산지역의 시민사회영역은 크게 성숙해있었지만, 사회적경제 내에는 그걸 잘 엮어낼 매개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용산센터와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지난 1년의 성과라면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용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지역사회에 알려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도 용산센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3차년도 사업을 앞두고 어깨가 무겁지만,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같이 연대해 이뤄내야 할 과제이기도 해 기대도 큼니다. 앞으로 용산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즐겁게 연대할 수 있도록 판을 확장하는 것을 3차년도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 용산구가 가진 지역 특성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진성

용산구는 타 구에 비해 빈부 격차가 크고 제3국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 약자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사회 현상으로 비추어보면 앞으로 소수자는 더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고립될 거라 봅니다. 사회 약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상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요.



황혜원

용산구는 중심지와 거주지가 혼합되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데 반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전형적인 도시예요. 빈부 격차도 심하고, 용산미군기지가 곧 공원화 되는 문화역사적인 특색도 있는 지역이죠. 이러한 용산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는데, 좀 더 복지영역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역사적인 특성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으면 해요.





김미선

용산구에는 콘텐츠나 서비스 업종 비중이 커서, 공동판매를 할 때 다양성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지는 이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건 코로나 19를 겪으며 폐업을 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용산에는 없어요. 드림트리빌리지의 경우 교육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영상제작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신민정

지난해 용산에서는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울시의 돌봄SOS사업을 함께하며 협업의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성과를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상호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는 한계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계속 고민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조정옥

작년에 센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산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업에 어떤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로 풀어낼지 고민을 했어요. 용산구는 빈부격차 등 그야말로 자본 중심의 도시라는 특징이 강해요. '돈이 없으면 이 도시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죠. 저는 그래서 더 이 지역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더 관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3차년도 사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찾고자 해요. 다행히 시민사회, 기업들의 역량들이 뛰어나고 적극적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요. 협동조합 설립이나 일반 회사를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문의가 많이 와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역사회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이성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용산구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사회적경제가 참여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성과로 꼽으셨는데요.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정진성

10년간 용산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했지만, 네트워크 활성화는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였어요. 긴 호흡으로 신뢰를 조금씩 쌓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을까요.



황혜원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에는 네트워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자치구와의 네트워크도 중요해요. 제가 속한 협동조합은 기관 특성상 자치구와의 협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용산구와 직접 연계 고리가 없다 보니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어요. 용산센터가 주선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자치구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업들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이성교

네트워크를 시도해 볼 기회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어요. 기회가 만들어지고 목적에 부합된 사회적기업들이 연대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 질 거예요. 네트워크와 연대를 위한 세밀한 기획도 중요해요. 시도되는 사업들이 모두에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후 네트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신민정

자활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단위인만큼,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와 같이 지역 복지시설 등과 연결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용산센터에서도 더 고민했으면 해요.



조정옥

센터에서는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과 다시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어요. 2차년도 초기만 해도 행정이 관심이 미약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3차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치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미선

센터의 설명에 덧붙여, 최근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자활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행정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단위들이 힘을 모아 민간의 힘을 키워서 이 네트워크가 더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의 역할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조정옥

작년부터 센터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한 용산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사업을 진행했어요.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했죠. 돌봄사업이 주요 비즈니스가 아닌 기업들도 참여해 지역 노인들을 돌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협력했던 사례였어요. 아마 영리기업이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개별 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미비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죠. 위기 속에서 연대의 힘이 발휘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사업을 더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선

앞서 얘기한 돌봄SOS사업은 정부 예산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스스로 연대를 통해 일궈낸 성과라 생각해요.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노인맞춤형 사업의 경우 보통 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보다 전화로 안부 묻는 형태로 대체했어요. 돌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인사랑케어는 일일이 직접 찾아 뵙고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지역의 먹거리 기업들도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해 먹거리를 전달했어요. 이러한 적극성과 유연성이 지역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성교

일단은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생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아이템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러한 사업의 변화에 따라 수익과 사회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역할이고, 이후 기업에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해 가야죠. 사무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및 물품 제공 캠페인을 진행해 서비스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민정

위기가 닥치면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코로나19 시기 자활센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 문의를 해왔어요. 기존에 200명이던 센터 참여자가 최근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자활센터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 확장이 그건데요. 배송, 방역, 빨래방 등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영역을 앞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해요.



정진성

어시스타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누구나 어려운 시기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주위 사회적기업 대표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실망했던 건 용산구청과 사회적경제과 공무원들의 무능함 혹은 무관심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지역 생태계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때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대표들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정진성

용산구청 사회적경제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오랜 시간 무너졌던 용산구 사회적경제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인 듯 해요. 이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잘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회복될 거라 기대합니다.



황혜원

기존에 용산센터에서 하는 협동조합 설립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등의 일상사업들은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어요. 한가지 바람이라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지금보다 더 폭넓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신민정

지역에서도 공공시장 우선구매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우리 지역은 물론 지역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길 바래요. 또한 용산구 외부에 있는 기업,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이성교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공공구매의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즐겁게, 그리고 가볍게 만나고 친해질 기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김미선

앞서 얘기한 공간문제는 임대료가 비싼 용산지역에서는 큰 문제예요. 기업이 규모화 되면 공간 등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상황이죠. 공간문제는 자치구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문제라 봅니다. 현재 용산센터 공간도 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지난 2차년도 연대 성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는 단발적 사업이 아닌 용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찾아가고 해결해 나갔으면 해요. 단발적 경험만 아니라 깊이 있게 지역에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정옥

단기적으로는 용산지역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센터 내 공간에 입주하려면 문턱이 높는데, 3차년도에는 초기 기업들도 이 공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의 조정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산구 차원의 다양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배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이들이 행정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함께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테마로 보는 용산SE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변화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2020년에도 펼쳤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2020년 용산구 사회적경제가 중요하게 가져간 의제를 집중 조명해보았다.

## 테마01 Network

- 36 네트워크 구축
- 40 지역사회 돌봄
- 44 건강 먹거리
- 47 교육

## 테마02 Agenda

- 52 여성 리더
- 55 혁신창의기업
- 58 SE공간

## 테마03 Platform

- 65 센터공간
- 71 주민기술학교
- 75 공동판매장

# 01 | Network

## 네트워크 구축

### 용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부탁해!

####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결과

호혜의 경제를 실현하며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용산구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지역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와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를 지난해 말 진행하였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가 참여해 도출한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 STEP 01

#### [내부환경]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설립 위한 토대 마련

용산구에는 총 131개의 사회적경제기업(2020년 10월 기준)이 존재한다. 이 중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기업을 고려했을 때 용산구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총수는 약 50여 개로 추산된다.

용산구는 2009년에 제정된 총 4장 27조에 이르는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다른 구와 유사하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상태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용산구에는 일자리경제과 내 사회적경제팀을 두어 팀장 1인(6급), 팀원 2인(계장6급, 주무관7급)의 인력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위탁 운영되었다가 조직 해산 이후 2020년 6월까지 공백기를 거쳐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인사랑케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0여 개 기업들이 '상생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 STEP 02

### [목표/미션설정] '공동사업의 개발과 실행'이 네트워크 주목적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공동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여러 개의 공동사업을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 간의 관계를 해치고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은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목표와 미션은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 및 공유와 소통을 기본으로 각 기업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의 개발과 실행'으로 설정할 수 있다.

## STEP 03

### [멤버십/법적실체]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까? 연구 결과 법적 실체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기업활동이 가능한 법인격이기에 그 활동 반경과 활동 공간의 넓이가 참여 주체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멤버십의 운용과 실행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 시민네트워크로 하며, 이들이 조합원 총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멤버들이 되는 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기업 및 기관을 두며, 이들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초기 멤버십 이후 추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예비조합원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다.

## STEP 04

### [중장기 사업방향] 주체들 모여 함께 검토하고 차근차근 진행

현재 개별 기업(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이 위탁운영하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이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가 함께하는 용산공원 참여사업, 사회적경제교육사업, 지역 토탈커뮤니티케어사업, 공공급식사업, 연대사업 및 정책사업 등이다.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네트워크 구성 후 주체들이 모여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순서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STEP 05

### [거버넌스 체계] 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거버넌스 검토 필요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점들은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사무국이다.

조합원 총회는 네트워크의 최고의결기구로 조합원 1인 1표 원리로 운영된다.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업, 기관은 약 50여 개이다. 출자금과 조합비 규모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용산 고관여 기업'을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10-15개 기업 및 기관이 이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 기업 및 기관들의 출자금 기준과 조합비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용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그 관련 사항 결정 ▲향후의 공동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조합원 총회에 그 사항 부의 ▲서울시 및 전국적인 연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담당이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용산공원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의료사협추진위원회, 공공급 식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는 진행할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은 '정책위원회'이다.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사무국은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무국은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STEP 06

### [설립 프로세스]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설립 프로세스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프로세스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상생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이다.

구체적인 세부 프로세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2-3회의 집담회를 통해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단, 오는 7월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기에 프로세스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기관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에게 듣다

###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환경은 어떠하다고 보나요?

용산구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주체들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용산 고관여 기업'들의 숫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즉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할만한 주체까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즉 조례와 제도, 예산 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산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설립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이런 공백 상태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집담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논의가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정도를 목표로 1차 논의를 진행해보기를 권유합니다.

### 네트워크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성은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에 맞게 지역 내 신탁, 농협 등 규모 있는 선배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를 위한 교섭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설립 과정에서 서울 시내 및 전국 범위에서 진행되는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집담회부터 적용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 02

Network

## 지역사회 돌봄

### 지역사회 돌봄 사회적경제기업이 책임진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용산구는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돌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식, 집수리, 빨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사회돌봄 네트워크로 새로운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용산구의 도전에 대해 지역에서 오랜기간 돌봄사업을 펼쳐 온 기업으로부터 들어보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 김 미 선 이사장

### "사회적경제기업들 협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돌봄 모델 만들어 가"

용산구는 빈부격차가 큰 자치구이다. 용산기지를 경계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 이태원동, 한남동 등은 강남 못지 않은 땅값을 자랑하는 반면, 서울역과 인접한 청파동, 원효로 쪽은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용산구에서 10년 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이하 인사랑케어)의 존재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사랑케어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이자, 돌봄SOS센터 사업 일시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미선 인사랑케어 이사장을 만나 용산구 지역돌봄 네트워크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인사랑케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랑케어는 2008년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요사업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1~5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을 비롯해,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가사

지원, 간병지원, 개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산구 돌봄SOS센터 일시재가서비스 협약기관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긴급상황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발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49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및 사경센터 실무활동가 7명(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4명은 센터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돌봄기업으로 인사랑케어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인사랑케어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2008년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분들이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탈수급자가 되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지역에서 후원용품을 받으면 이용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함께 지원합니다. 우리 모태가 자활기업이라는 자부심이 크고, 그 뿌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렵더라도 이들의 고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양보호사들 간에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워진 점이 무엇보다 아쉬워요.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자이기에 스트레스가 커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는 교육, 상호교류, 복지 제공 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큼니다. 요양보호사들 대다수가 60대들이라 zoom을 통한 소통도 쉽지 않아요.

### 용산구의 경우 지역돌봄 네트워크가 활발한 편인데요. 고민이 싹트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몇 년 전 생태계 사업단을 할 때 네트워크 구성은 했지만 특별히 논의하는 이슈가 없었어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정도의 고민이었죠. 실제로 네트워크가 고민에서 실천으로 옮겨진 계기는 작년 8월부터 참여한 용산구 돌봄SOS센터 사업이었어요. 돌봄SOS센터는 서울시 지원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서비스 등 8대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업이죠. 이 중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서비스 부분 등을 맡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이 아닌, 음식, 집수리, 빨래 등의 사업을 하던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고루게 역할을 해야 하니 그걸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더불어 용산구가 임대료가 높아요,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도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다른 자치구로 옮기는 기업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돌봄SOS센터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이 가진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돌봄SOS센터 사업이 작은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지역돌봄네트워크의 지향은 무엇인가요?

네트워크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큼니다. 다양한 공공사업들을 네트워크 이름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키움센터 운영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복지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인사랑케어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위해 향후로는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더 나이 들면 인사랑케어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려면 인사랑케어가 지속가능 해야겠죠. 규모화 되는 것보다는 지역 안에서 돌봄기업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지역통합돌봄의 구심점이 되는 기업으로 오래 갔으면 합니다.

##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 한 동 화 이사장

###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삶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라!'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에서 공간은 매 순간 인간 상호작용에 개입하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의미다. 용산구에도 이처럼 주거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바로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이다.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은 용산지역 주민들의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수리 및 개축 등의 주택 수리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의 한동화 이사장을 만나 용산지역의 주거문제와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의 출발 스토리가 궁금해요.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은 용산지역 주민들의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수리와 개축 등의 주택 수리 관련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시작된 곳이에요. 처음 마음을 모았던 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설립 반대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2015년 1월 용산집수리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 출발해 2018년 4월 협동조합 설립총회를 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 주로 어떤 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나요?

현재 활동하는 8명의 조합원 모두가 용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건축협동조합이지만 처음에는 실제 건축을 전공하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라 조합원 중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함께하며 관련 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용산지역의 낡은 주택을 주민 참여로 수리/개축하는 사업에서부터 주택 수리 관련 기술교육, 회원들에게 공구 대여 사업도 하고요. 협동조합 단독으로 신축과 리모델링,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도 함께 합니다. 최근에는 돌봄SOS센터 사업, 해방촌 도시재생 주거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돌봄SOS센터사업은 지역의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희는 노인들의 주거지원을 담당합니다. 주거개선이 필요한 집을 찾아가 형광등 교체부터 겨울철 집에 비닐을 씌우는 등의 집수리 지원에서부터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방역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요.

### 직접 집을 찾아가 지원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면 필요 없는 짐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은 방문한 어르신 댁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몇 톤 트럭에 실어갈 정도였죠. 물건을 검은 봉지에 넣어둬서 무슨 물건인 줄도 알 수 없고. 생각보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는 바퀴벌레 등 해충도 많아서 방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청소하러 간 조합원들이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깨끗해진 공간을 보면 뿌듯하죠. 사람에게 주거공간은 참 중요해요. 때로는 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바꾸고 마인드까지 바뀌게 만들어요.

### 용산구의 주거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용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 낙후된 동네가 많아요. 쪽방촌 등에서 사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주거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니, 우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활동하고 있어요.

###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구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우리 같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또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지길 바랍니다.

###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협동조합은 대표 혼자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닌 듯 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가는게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최근에는 이게 쉽지 않지만, 가능한 조합원들끼리 같이 밥 먹으며 자주 소통하려 노력해요.

## 03

### Network

## 건강 먹거리

### 건강한 먹거리로 만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최근 인간 수명이 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먹거리이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먹거리 기업들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며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니즈를 모아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내 건강한 먹거리 문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위해 먹거리 기업들의 연대를 고민하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민을 들어보았다.

다사리협동조합 / 남 기 문 이사장

### "먹거리 기업들 연대 튼튼해지려면 자기 필요 있어야"

2014년 해방촌에 동지를 튼 다사리협동조합은 건강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마을기업이다. 이러한 가치는 기업명에도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 다사리협동조합에서 '다사리'는 '모두를 잘 살게 하다'는 의미이다. 더 붙여 사는 세상을 위해 다사리협동조합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통장 제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먹거리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작년에는 안전한 저녁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방과후 돌봄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종합돌봄센터도 문을 열었다. 또한 마을형 농산물 공동구매 창고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기업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남기문 다사리협동조합 이사장이 있다. 남 이사장을 만나 다사리협동조합의 활동과 지역의 먹거리 기업 간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 다사리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 되었나요?

다사리협동조합은 건강한 먹거리와 방과후 돌봄교육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작된 마을기업이에요. 2014년 10월 서울 해방촌 성당의 이영우 주임신부님이 '생활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문을 열었죠.



### 다사리협동조합의 첫 사업은 전통 장 만들기로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네. 처음에는 전통 장 만들기로 시작했죠. 2017년에는 해방촌 인근에 '마음한잎 꿈한그루 식당' 문을 열어 전통장과 이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팔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전통장 체험학습을 진행했 어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전통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 전통장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현재 다사리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전통장은 된장, 고추장, 간장 3가지인데요. 우선 유전자 변형이 안 된 국산콩, 천일염 등을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들고요. 인근 성당과 학교에 장독대를 마련해 전통적 방법으로 숙성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보는 공장식 된장과 전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숙성의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숙성 과정 없이 감미료로 향을 내는 공장식 된장에 비해 전통장은 맛도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도 잘되어 건강한 먹거리라 할 수 있지요.

### 전통장은 주로 어떻게 판매되나요?

전통장은 온라인 샵에서 팔기가 어려워요. 숙성하려면 장독대가 필요한데 둘 때가 많지 않아 주문을 많이 받기 어렵죠. 그래서 소매로 팔다보니 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세요. 해방촌은 4대가 사는 집들이 많다 보니 장 문화에 익숙한 동네거든요.

###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종합돌봄센터 '별난 발상'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사리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저녁시간이 불안정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저녁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방과후 돌봄교육이 균형있게 운영되는 공간을 만들자고 결심하고 작년 5월에 센터의 문을 열었어요.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댄스, 연극, 영상, 사진, 놀이미술, 놀이수학,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한 문화예술 놀이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해방촌 자체가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더 모집이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현재 해방촌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명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인원이 적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을수록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적다고 이런 공간조차 없다면 더욱 사람들이 여가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할테니까요.

### 좋은 공간인데 아쉽네요. 지역의 먹거리 기업들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에서 '돌봄 SOS 사업'을 했는데, 식사 지원을 위해 지역의 먹거리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면서 소소하게 만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식사 지원을 어떻게 잘하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지요.

###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거리 업체들 간에 연대가 튼튼히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가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자기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분이 채워져야 연대도 지속가능하니까요. 6월부터 다사리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하려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이분들이 흔쾌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본인 이해를 가지고 더 가깝게 네트워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어떤 건가요?

마을형 농산물 공동구매 창고인 '해방촌 곳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농촌의 중소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연결되어 생산과 소비가 직거래 되는 유통체계를 목표로 하는 마을형 농산물 공동구매 창고인 거죠.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작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도 돕고자 해요.

###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용산구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거동을 최소화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죠. 이걸 어떤 망을 통해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배송'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배달 앱, 배달노동자 문제 등 배송영역이 자본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배송을 공공재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로 80대 이상 고령층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식사도 해야 하고, 병원 이동서비스도 이뤄져야 하는데 동네에서 식사 배달도 하고 이동서비스도 지원된다면 배송시간도 절약되고, 기존 배달노동자의 노동시간도 줄어 들고, 주민들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어요. 또한 택배 물품도 공공배송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런 공공서비스 망을 지자체와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한다면 분명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설립된 상생의경제 용산사회적협동조합도 그런 공공재 역할을 고민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 04 | Network 교육

### 교육 사각지대, 함께 연결로 풀어가요

용산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구 수가 적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질 높은 교육사업을 펼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지역의 사회저경제기업들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대표 교육 기업 중 두 곳을 만나 지역에서 펼치는 교육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 도 현 남 기획실장

"혼자 보다는 같이 할 때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 나올거라 기대"



서울의 중앙부에 위치한 용산구는 다양한 빛깔의 역사를 지닌 지역이다. 해방 이후 이북에서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온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해방촌'에서부터 애국선열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 곧 용산공원으로 탈바꿈 되는 용산기지까지. 이러한 역사적 보고 속에 자리한 용산구의 지역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다.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용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용산지역의 역사문화 해설과 마을여행을 운영하는 용산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동조합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과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을 펼쳐가는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도현남 기획실장을 만나보았다.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용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마치고 지역의 역사·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가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며 시작되었어요. 2017년 처음 설립될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조합원이 20명으로 늘었어요. 용산구를 기반으로 용산역사문화 해설, 용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의, 미군기지 주변지역 해설, 마을 여행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우선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산기지 주변 지역 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효창공원 관련 해설사 양성 과정 등이죠. 우리 강좌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용산기지 주변 둘레길 해설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용산구 지역 역사와 문화, 지역문제에 대해 소개도 하고, 용산 주민들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고 있어요.

### 지역 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나요?

우리가 운영하는 몇 회의 강좌를 우선 이수해야 하고요. 그게 끝나면 현장 탐방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걸 마친 분들은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탐방하면서 해설사 훈련을 해요.

### 그럼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모두 지역 해설사 출신들이신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조합원들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분들은 지역 해설사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들을 가지고 계세요. 동화작가도 있고 궁궐 해설사, 숲 해설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시민단체 활동가, 방과후강사 등 직업도 다양하지만 모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역사 교육도 중요한 사업인데요. 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주로는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들이에요. 효창공원 같은 곳은 같이 탐방하며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요. 교육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지 몰랐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고 나니 다시 보이고 자긍심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활동 단체장,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독립연대 활동가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반응이 좋았어요.

### 다양한 지역사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용산이 가진 지역적 특성으로 교육사업을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나요?

용산구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어요. 그러다보니 교육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교육기관도 많지 않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왕성하지 못해요.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도 소규모로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용산기지가 용산구의 정중앙에 엄청난 크기로 자리하면서 동서남북이 서로 연결 되지 않아 더 거리감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용산구나 일부 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금씩 나아질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교 대상의 교육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클 거 같아요.

맞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려니 문턱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 학생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학생 자치활동도 활발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학교나 자치구와 더 많은 협력의 계기가 생겼으면 합니다.

### 아무래도 학교나 자치구와 협력을 넓혀가려면 혼자 보다는 여럿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교육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용산구에서 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분과에 참여하며 지역의 교육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만나고 있어요. 얘기하신 대로 혼자 보다는 같이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다만 코로나19로 만나기가 쉽지 않고 회의를 해도 줌으로만 하니 한계가 있어 아쉬워요, 그래도 마을분과 내에서 소규모로라도 돌아가며 기업들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도 보고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서로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기업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니,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게 좋겠죠.

###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용산구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역주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마을활동가들의 연대 의식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 하면 어렵게 생각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포괄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재미만 추구할 수 없으니 전문기업을 성장 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도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교류하는 몇몇 기업에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행히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탐방의 경우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진행해서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었죠. 올해는 서울시 민간축제에 참여해 우리 조합 만큼 용산기지 주변 역사를 잘 알고 해설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산기지 주변과 조성 준비 중인 용산공원을 알리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용산이 가진 지역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지역사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교구 개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민들이 스스로 찾는 가치, 지역사회 바꾸는 작은 파장 될 것"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는 지역의 가치를 교육으로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기업이다. 온지곤지가 활동하는 거점공간인 해방촌은 아이도 적고, 교육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은 곳이다. 온지곤지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소모임, 교육,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남종려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이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온지곤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온지곤지는 책을 매개로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는 기업이에요. 해방촌 '온지곤지' 책방에서 출발해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교육/문화, 도시재생, 지역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요하게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은 출판사업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지역 탐방을 하고 쌓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활동이죠. 엄마들과 함께하는 글쓰기 모임 내용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지역 내 고등학생들과 함께 책 만들기 수업도 해요. 또 공공기관 도서 납품사업을 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민 참여 공론장이나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도 합니다.

### 그럼 언제 사업을 시작한건가요?

2010년부터 지역에서 인문학을 연구하는 모임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기반이 아니었는데 몇 팀원들이 용산으로 이사오면서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지역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린이·청소년 책방 '온지곤지'를 운영하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결합해보는 실험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결심하고 2018년 12월에 함께하는 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 협동조합 구성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현재 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용산구 주민이고, 절반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교육기업이다 보니 인문학, 글쓰기, 미술교육 등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 최근에 주력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최근에 해방촌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찾아보자'는 취지로 온지곤지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지역공동체 규약을 만드는 '주민의 약속 만들기' 사업을 맡았는데, 지역에 대해 잘 알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역주민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용산구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또한 그 속에서 교육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나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해요. 동네마다 경제적 격차도 커서 교육환경도 제각각이죠. 특히 해방촌의 경우 아이 수가 적다 보니 교육 관련한 제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요.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죠. 다문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120여 명인데 그 중 20여 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해요. 온지곤지는 이러한 동네 환경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용산지역 교육 사회적경제들간 네트워크 현황이 궁금해요.

지역에 교육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어서 여러 활동들 하며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사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필요성은 느끼나 모델이 없다 보니 막연하게 느껴져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기업들이 모여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남산아래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 일단은 사회적경제 관련 책모임을 시작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활용해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돌봄SOS센터사업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죽을 제공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 보나요?

주체가 서야 한다고 봐요. 각자 사업하기 바쁘니 그걸 엮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네트워크 이상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용산구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기업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많았으면 해요. 다들 기업 규모가 작으니 분업이 어렵고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구조예요. 실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시스템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온지곤지가 지역에서 어떤 기업으로 남길 바라나요

온지곤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남고 싶어요.

## 05 | Agenda 여성리더

### 지역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 여성리더가 있다!

####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리더십 포럼

용산구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 발굴 및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선다. 이에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30일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리더십 포럼'을 서계동 만리서재에서 개최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사회적경제인 5인을 모아 이들이 운영하는 조직 운영의 성과와 한계,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포럼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조정옥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용산구 여성리더들이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용산을 변화·발전시키는 과정을 공유하고자 포럼을 준비했다"며 "더불어 향후 여성 리더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연대와 호혜를 바탕으로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사회 가치 실현에 나선 여성 사회적경제 대표들은 '여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날 포럼에서 입을 모았다. 용산구 사회적경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중심에 선 여성리더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 공영희 / 두시공예협동조합 이사장

#### "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가치 창출"



2018년 설립된 두시공예협동조합은 전통기술 장인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나 디자인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현대와 전통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K-문화에 부합해 우리 고유의 상품을 고민하는 등 전통공예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소재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지역 여성들을 교육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나가서 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역 여성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 중 손재주가 있는 여성들이 집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납품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부들이 집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며 육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조합원의 상황에 맞게 서로를 도우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

## 황 혜 원 /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로 보물... 지역변화에 더 민감한 여성들이 앞장"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용산구청에서 진행한 용산기지 내부탐방에 참여하며 용산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였습니다. 용산지역에 애정을 가진 20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2017년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마을의 역사학을 만드는게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멀리서 보물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보물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여행을 운영, 용산의 역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용산주민 대상 강좌, 용산기지 안내자 양성과정 진행, 청소년 대상의 용산 지역사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용산기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주민들이 알고 참여를 통해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 신 민 정 / 용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지역활동, 여성 리더십이 강점"



용산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현재 용산지역자활센터는 2개 교육과정과 15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청소부터 편의점, 빨래, 카페, 베이킹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지역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를 비롯해 3개 자활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크고작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원활한 소통능력과 전문적 지식, 사고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사고인데, 여성들이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소통 능력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은 가정 돌봄의 책임자이자 가정의 역할까지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

## 이레샤 페레라 / 톡투미다밥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여성·이주자라서, 자신을 틀에 가둘 필요는 없어"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와서 2010년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를 시작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재능을 개발해 일자리를 만들자며 의기투합해 2016년에는 톡투미다밥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톡투미다밥'은 대화하면서 같이 밥 먹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톡투미다밥에서는 스리랑카,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출신 여성들과 함께 다문화음식 도시락·밀키트 제작, 요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여성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이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틀에 가두지 않고, 스스로 가진 재능을 잘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가치 있게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김 미 선** /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이사장

**"여성종사자 다수인 돌봄서비스,  
'좋은 돌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사랑케어는 2008년 용산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시작해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기관, 정부가 '좋은 돌봄'을 일궈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자치구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인사랑케어를 비롯한 많은 돌봄 종사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돌보며 삶의 질 향상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명인 '인사랑케어'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돌봄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좋은 돌봄'은 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종사자도, 서비스 제공기관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인사랑케어의 조합원 대다수는 요양보호사이자, 여성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는 '필수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등과 만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역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다 보니 여성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한데, 남성을 비롯해 누구나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06

## Agenda

### 혁신·창의기업

환경·사회·사람에게  
이로운 친환경 기업

#### (주)송지

(주)송지는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천기저귀, 천생리대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이다. 천기저귀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천기저귀를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수거해 세탁해주는 세탁렌탈사업도 펼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환경·사회·사람에게 이로운 친환경 기업을 지향한다. 기업명인 '송지'는 소나무 '송'에 뜻 '지'를 써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초심을 잃지 않고 뜻을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지는 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의 자립을 돕는 국제NGO 생명누리공동체에서 시작했다. 서울에 본부를 두면서 일자리와 아이들에 대한 건강, 환경과 관련된 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했고 마침 일회용 기저귀가 많이 버려지는 상황을 보며 천기저귀 토탈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송지는 공공기관 및 기업 내 어린이집에 천기저귀 제공을 하는 사업과 더불어 출산용품 바우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송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서울시 환경상 환경보존부문 최우수상(2015), 환경부장관 표창장(2014), 피터드러커 혁신상(2012), 서울지역사회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2011) 등을 받았다.

[www.1004mom.net](http://www.1004mom.net) / 1588-3989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서비스

#### 드림트리빌리지

2014년 설립된 드림트리빌리지는 년소녀 가장, 새터민, 이주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다. 드림트리빌리지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드림트리빌리지의 주요사업은 영상물 제작, 비대면 행사 중계, 문화예술교육(영상, 실용음악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장비 대여(음향, 영상) 등이다. 더불어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음악 관련 욕구가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트리스쿨'을 비롯해, 노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립을 위해 결성한 홈리스밴드인 '봄날밴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니어를 위한 '멋쟁이시니어합창단' 운영,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음악교육 지원, 청각장애인들의 뮤지컬 공연을 위한 음원제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드림트리빌리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소셜미션을 가진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가치 있는 따뜻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통해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이 드림트리빌리지의 꿈이다.

[www.facebook.com/dreamtree.village](http://www.facebook.com/dreamtree.village) / 070-7592-0053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 주식회사 체험팩토리

주식회사 체험팩토리는 2012년부터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대상별 맞춤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확산, 운영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사회공헌 컨설팅, On-Off 홍보시스템 기획 및 운영/제고를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및 구성원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고민한다. 세부사업으로는 △과학, 산림, 에너지, 환경과 더불어 공간, 목적, 대상, 분야별 콘텐츠 기획 및 개발하여 홍보확산, 보급, 운영하며 강사양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는 기획, 개발된 교보재 제작 △공공기관 정책, 기업 등의 사업모델 분석을 통해 대상 및 목적에 최적화된 one-stop 프로세스 사회공헌 컨설팅 기획, 개발 운영하여 맞춤형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On-line 홍보 시스템 기획, tool 제공과 더불어 공간기획, 디자인 및 현장코디네이터를 통한 효율적인 On-Off 연계 홍보솔루션 제공 등이다. 체험팩토리는 교육 기획에서부터 운영, 관리와 더불어 홍보,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one-stop system(강의안, 교보재, 강사양성 및 제공, 디자인, 홍보, 관리사이트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요구도를 수렴분석함으로써 소통형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혁신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체험팩토리는 향후 교육 공백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비롯해, 지역과 기업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나눔과 상생의 네트워크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www.chehumfactory.info](http://www.chehumfactory.info) / 02-6925-4221

반값 생리대로 건강한  
생리 문화를 만드는

## 주식회사 29일

29days는 2016년 여성 위생용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위생용품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다. 비싼 생리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셜미션을 갖고 국내 1호 반값 생리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여성위생, 건강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29days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사회적 문제, 건강 문제, 문화적 문제 크게 3가지이다. 생리대 생산의 독과점으로 인해 비싸게 책정된 시장 가격에 대한 해결, 질 좋은 제품 생산을 통한 여성 건강 문제 해결, 국내 부족한 위생교육 및 생리대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다. 반값 생리대는 자사몰 포함 온라인 쇼핑몰 13군데에서 판매한다. 생리대 구매 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하루치 생리대가 기부되는 사회공헌사업은 물론, 대학생 비영리단체인 '십시일법'과 함께 대학교 여학생 휴게실에 상비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도 벌여 여대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용산교육복지센터, 강서교육복지센터,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9days는 div으로 위생용품 전문브랜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소비자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29days.co.kr](http://29days.co.kr) / 070-4388-2078

일회용품 대체 솔루션  
제공하는

**트래쉬버스터즈**

일회용품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트래쉬버스터즈는 현재 기업 내 사내카페와 탕비실에 다회용컵 렌탈 서비스를, 단체도시락 업체에도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다회용 식기 렌탈 서비스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곳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서비스이다. 서비스 장소에 따라 알맞은 다회용기를 대여한 후 수거, 세척, 위생관리, 재대여 등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소셜미션에 기초해 트래쉬버스터즈의 모든 다회용기는 찌그러지거나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분쇄 후 원재료화해 다회용기로 다시 재생산하는 자원의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다회용기의 재질인 PP(폴리프로필렌)의 특성 때문이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제작과 사용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폐기하고 재순환 시키는 단계까지 고려했을 때 다회용기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PP(폴리프로필렌)이라고 판단했고, 타 플라스틱보다 재가공이 월등히 용이하여 식기를 여러 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원재료화 하고 새로운 식기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린피스 역시 '2019 플라스틱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제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인 사용 억제보다는 이미 생산되고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자체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버려지지 않고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환경 사업 문제의 핵심이며 혁신이다.

또한 다회용컵의 경우 하루 800잔을 다회용컵으로 전환 할 때 약 41,600gCO<sub>2</sub>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한 달에 832,000 gCO<sub>2</sub>, 1년에 9,984,000 gCO<sub>2</sub>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75리터 종량제 봉투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평균적으로 100개~150개 정도가 배출된다. 이를 기준으로 15,000원 단가의 75리터 쓰레기 봉투를 7개 절약할 수 있고, 한 달에 140개, 1년에 1,680개가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참고로 2021년 4월부터 다회용컵 렌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KT 광화문지사의 경우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이 기존의 약 1/10 정도로 감소 되는 결과가 나온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민들이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일회용품 없는 생활이 가능해?'라는 물음에 '별거 아니잖아, It's not a big deal!'이라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대답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trashbusters.kr](http://trashbusters.kr) / 02-6010-1164

## 07 | Agenda SE공간

### 용산 사경 HOT 플레이스!!

언제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간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공간들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찾아 가보실 수 있도록 모아 놓았어요.  
어느 공간이 오늘 여러분의 기분에 딱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 다사리 협동조합 마음한잎 꿈한그루

### 전통장을 제조하는 다사리 협동조합의 건강한 식당 '마음한잎 꿈한그루'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은 집밥 보다는 맛과 영양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에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칭찬을 받는 식당이 있다.

바로 '마음한잎 꿈한그루'(이하 마음한잎)다.

마음한잎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집밥보다 좋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식당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다사리 협동조합의 '다사리'는 이 사회를 잘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이타적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당장 결과로는 보이지 않아도 더 큰 이윤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가치관들이 식당의 음식에도 구현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건강한 식재료만 고집하다 보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남기문 대표는 "우리나라는 장을 기본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한다. 이 장을 같이 만들고 판매하고 또 소비하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상생"이라고 답했다. 마음한잎은 함께 살아가는 해방촌 주민들을 중심한 마을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식당에 좋은 식재료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

도나도 하나둘씩 모여든다. 그래서인지 유독 단골손님이 많다. 개개인의 마음 한잎이 모여 결국 한 그루의 나무처럼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2003년부터 시작해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마음한잎의 최고 인기메뉴는 치즈감자전이다. 해방촌 주민들은 오늘도 외친다. "오늘 마음한잎에서 모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1-3



마음한잎 꿈한그루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만리서재

### 배움으로 하나 되는 지식공동체

서울역 근처 만리서재는 ㄷ자형 구조의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다. 카페 밖 도로에서 마당이 훤히 보이는 개방적인 구조이면서 내부로 들어가면 천장의 대들보, 도리서까래 등의 자연 나무가 그대로 보여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지식협동 좋은나라에서 운영하는 한옥카페 만리서재는 서울역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만리재라는 길에서 딴 이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북카페뿐만 아니라 문화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궁극적 미션이 '지식나눔'이기 때문인데, 실제 조합원의 2/3가 대학교수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교수라고 해서 늘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공이 아닌 분야에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으며 겸손함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서로서로가 멘토이자 멘티인 셈이다.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곳이 만리서재다.



몰랐던 지식을 배우고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 만리서재는 꿈 이야기가 흐르는 곳이다. 역사와 문화가 역이고 발견되어 생산·유통되는 형태로 지식나눔이 이뤄진다. 동시에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모이는 공동체적 기능도 수행한다. 2019년 3월에 오픈한 만리서재는 1966년에 지어져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긴 시간동안 누군가의 집이기도 했고, 한때는 동네 약국이기도 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BTS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회사이기도 했다. 앞으로 만리서재에 축적될 역사가 기대된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93길 42**



**만리서재**



자활기업 카페  
**더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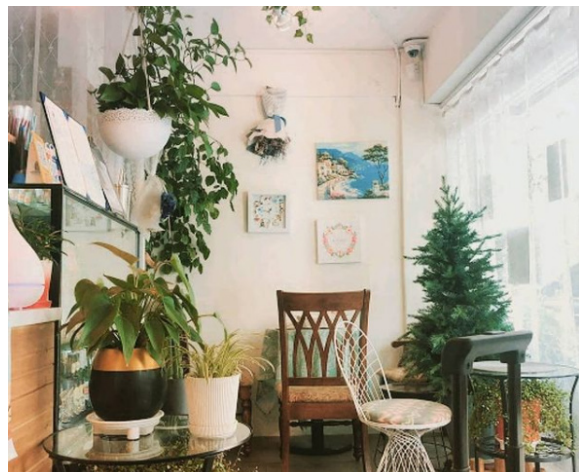
## 진심이 실현된 정원

이태원 더플랜트에는 3년째 찾아오는 동네 고양이가 있다. 노란 색깔에 흔히들 치즈냥이라고 부르는 무늬의 길고양이. 지금까지 더플랜트를 거쳐 간 고양이만 해피 1, 해피2, 사막여우, 까망이, 까미 총 5마리다. 까다롭고 경계심 강한 동물인 고양이 손님들 위해 매번 사료를 구매하는 더플랜트가 과연 사람 손님에게는 얼마나 따뜻할지 궁금해졌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더 파는 것보다는, 친절함 마음을 꾸준히 전하다 보면 결국 그 진심이 통할 거라 믿어요"

더플랜트 정영임 대표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팔로워 수만 1800명이 넘는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가까워진 사람들은 주말마다,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다. 인스타그램에도 손님들과 찍은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더플랜트의 두 대표의 특기는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 이렇게 더플랜트는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공간이다.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대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형 카페들이 줄줄이 들어서서 이태원 중심가에 7평 남짓인 작은 공간이지만 단골이 유독 많은 이유다. 요즘은 양식, 한식도 시락과 케이터링을 시작했고, 바쁜 시간을 쪼개 수제청을 만들기도. 늘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예쁜 공간과 잘 어울리는 파파야 피클도 개발했다.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는 곳, 특별한 맛이 기다리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곳! 더플랜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4-3**



더플랜트

단꿈협동조합  
단꿈공방

## 모두의 꿈을 만들어내는 공방

후암동에 위치한 단꿈협동조합은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한지공예 기술을 교육하여 그들이 만든 한지공예품을 판매하고 직접 제작한 한지공예키트를 사용하여 수업도 진행한다. 판매와 교육의 수익금은 다시 취약계층의 자립에 쓰인다. 후암동의 소망을 찾는 이 교회의 김용삼 목사와 40년 전통한지공예가 백현순 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단꿈협동조합은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도우며 시작되었다. 단꿈의 뜻은 가난과 절망을 끊어내고 꿈을 품자는 의미로 쪽방촌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우리는 가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할 때 돕는다는 선의가 앞서 그들을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꿈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스스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과정에 주목한다.

동시에 단꿈공방은 꿈과 예술의 공간이기도 하다. 취약계층이 제작한 한지공예키트를 통해 한지공예를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역의 아동들이 많이 찾는다. 고사리손으로 우리의 전통 종이를 자르고 붙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지역과 약자에 대한 마음이 싹튼다. 단꿈공방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경 대표는 이것이 마을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이며 마을기업의 역할이라 한다.

누군가는 자립의 꿈을 꾸고, 누군가는 아기자기 예쁜 꿈을 손으로 빚어 내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되는 단꿈공방. 이렇게 단꿈공방은 모두가 '꿈꾸는 곳'이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35-3



단꿈공방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 프로젝트 후암

### 마을 속 또 하나의 우리집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도시공감)는 후암동 일대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콘텐트들을 모아 '프로젝트 후암'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공감은 우리동네 공유공간과 마을 아카이빙 두 가지로 주제로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소통한다. 후암동 프로젝트는 현재 후암주방, 후암서재, 후암거실, 후암별채, 후암가록, 후암연립, 후암카페 우리다 등의 공간을 운영한다. 모든 공간이 도보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 내 집은 나 혼자 사는 곳이라면 프로젝트 후암의 공간들은 동네 주민들이 같이 사는 또 하나의 집이다.

후암가록 : 마을 아카이빙, 마을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공간, 후암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여 계간지 후암탐구생활을 발행한다

후암주방 : 3평 남짓한 아담한 공유주방, 식재료는 바로 옆 후암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 동네 친구나 연인을 초대해 소소하지만 멋진 나만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곳

후암서재 : 조용히 책을 보거나 작업실로 쓸 수도 있는 공유서재, 내 서재를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리 동네에 내 서재가 있다, 독서모임, 세미나 등의 모임과 스터디를 위한 공간으로 대관도 가능

후암거실 : 작은 사치를 통해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를 만나고 작은 화면에선 오롯이 감동을 전달받을 수 없는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최근 후암연립의 결함으로 더 풍부한 공간으로 재탄생

후암별채 : 오롯이 한 사람만을 위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밀도 있는 작업과 완벽한 휴식이 가능한 공간. 책상과 의자, 간단한 식기가 구비되어있는 공간과 반식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가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호텔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3-4



프로젝트 후암



사회적동조합  
**톡투미다밥**

## 다양성이 함께해야 행복한 공간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이하 톡투미)의 공간은 요즘 막 재정비 중이다. 사업이 활발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공간을 새롭게 단장할 시점이 되었다고 한다.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은 2010년 톡투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주여성단체다. 교육 봉사 프로그램과 도시락 사업을 해오다 2016년 톡투미다밥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최근 밀키트 사업에까지 도전하며 단체 유형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갈월동에 위치한 톡투미다밥의 공간은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과 강의실, 실습실,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며져있다. 사무실 한켠에는 온갖 피부색깔들의 봉제인형들이 가득하다. 톡투미다밥이 추구하는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물씬 느껴진다.

다밥은 '다 함께 밥먹자'라는 뜻. 다문화 음식 교육뿐만 아니라 톡투미만의 고유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 '모니카와 놀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절찬리에 판매 중인 톡투미의 동남아 밀키트는 현지의 맛을 살린 특유의 소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갈월동 톡투미에 오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할 수 있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85 3층**



톡투미다밥

## 08 | Platform 센터공간

###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용산구 독서당로46 한남아이파크에비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8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기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로는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1, 소회의실2가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들은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 용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산구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및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사에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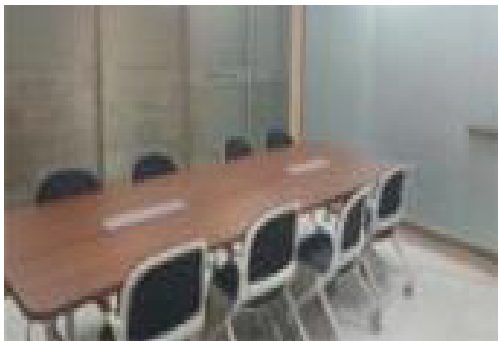
(※ 2021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입주기업을 제외한 조직들에게는 대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 교육장

- 면적 : 82.644m<sup>2</sup> (25평)
- 규모 : 15명부터 신청가능~40명
- 용도 :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트, 마이크, 오디오, 화이트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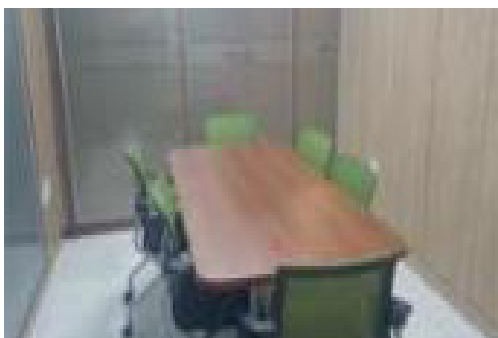
### 대회의실 (회의실 3)

- 면적 : 19.834m<sup>2</sup> (6평)
- 규모 : 6명부터 신청가능~12명
- 용도 : 회의, 스터디, 소규모 교육 등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 소회의실 1

- 면적 : 9.917m<sup>2</sup> (3평)
- 규모 : 3명부터 신청가능~6명
- 용도 : 회의, 스터디
- 사용가능기자재 : 화이트보드



### 소회의실 2

- 면적 : 9.917m<sup>2</sup> (3평)
- 규모 : 3명부터 신청가능~6명
- 용도 : 회의, 스터디
- 사용가능기자재 : 화이트보드

##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소개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두시공예  
협동조합

Du:xi

두시공예협동조합은 공예가들의 질 좋은 상품의 시장확대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두시공예협동조합은 이제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가치 추구를 위한 자원순환 환경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주)29일

29  
Days

(주)29일은 여성의 위생을 사회적, 건강적, 문화적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함으로써 여성 위생 및 문화 증진에 기여합니다. '반값 생리대 29days'는 29일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16년 12월 사회적 문제점인 불필요하게 비싼 시중의 생리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 (주)체험팩토리



(주)체험팩토리는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확산, 운영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의 교육 공백 해소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맞춤형 사회공헌 컨설팅, On-Off 홍보시스템 기획 및 운영,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및 구성원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 실현합니다.



사회적기업

## (주)레드스톤



(주)레드스톤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브랜드의 PC와 모니터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업무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공조하여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기자재 기부 활동과 노후 컴퓨터 무상점검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주)드림트리빌리지

Dreamtree Village

(주)드림트리빌리지는 취약계층(소년소녀 가장, 고아, 새터민, 이주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청년, 노숙인, 장애인, 시니어 등)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서비스(영상제작, 영상교육, 음악교육, 연습실과 합주실 대여, 공연기획, 앨범기획과 제작 등)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상포협동조합



우리상포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장례·장묘 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인 친환경 장례 복지 문화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장례협동조합입니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장례행사 진행과 장례용품을 판매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와,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주)인사랑케어는 2008년 6월에 출범한 용산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이자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자인 근로자가 즐겁게 일하는 가운데 보람을 찾는 돌봄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 (주)지오스캔



GeosCan Co., Ltd.

(주)지오스캔은 지반공학 분야의 선두를 목표로 2002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주로 석 박사로 구성된 전문인력과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최상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과 친환경 기법 개발에 경영목표를 두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09

Platform

## 주민기술학교

용산구 주민기술학교에서 협동조합 설립까지

## '정리수납'으로 지역관리기업 설립에 나선 지역민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산구 주민기술학교를 열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도 그 중 하나다. 4개월간 18회에 걸쳐 진행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에는 지역주민 67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 중 3명은 배운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수납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관리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고자 올해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정리수납 전문가로 앞서 활동하던 지역주민 2명이 최근 결합하면서 지역관리기업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센터는 이들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돕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리수납 지역관리기업을 준비 중인 이선진 주민기술학교 수료생과 박혜선 정리수납 강사를 만나 정리수납의 사회적 의미와 지역관리기업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두 분 모두 정리수납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정리수납 일을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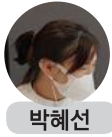
평소에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정리하며 힐링을 느낄 정도였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터라 정리수납일이 제게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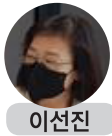
저는 원래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평소 정리수납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리의 중요성을 더 절감하면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정리수납 교육과정을 듣고 지금은 한국수납정리 2급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 정리수납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박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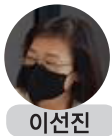
교육을 받으며 제가 정리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리를 잘 하니 마음 한 켠에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을 다른 분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선진

평소에 집안일은 비효율적인거라 생각했는데, 교육 후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안일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욱이 정리수납 일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정리수납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자원봉사로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용산지역의 경우 정리수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대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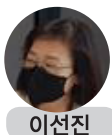
### 이선진님의 경우 용산구 주민기술학교(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주민기술학교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나요?



이선진

저는 용산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잠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용산으로 왔어요. 영어교육 일을 해오다 취미생활로 시작한 베이킹을 업으로 살려 강남구에서 4년 정도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베이커리 가게에서는 빵만 파는 게 아니라 베이킹이나 손뜨개질 모임도 하며 수익보다는 지역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걸 중심으로 고민하며 운영했죠. 그때의 경험으로 제 자신이 수익 창출보다는 공동체에 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용산구에서 진행한 주민기술학교는 바로 그 공동체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주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는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 그런 기대를 안고 참여했는데 실제 주민기술학교(정리수납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는 어땠나요?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요.



이선진

주민기술학교에 함께하며 새로운 지역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기에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공동체가 가진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들은 강좌 중 부엌 등 공간 정리를 가르쳐 주는 강좌가 기억에 남아요. 특히 내 집을 바꿔보는 시간을 주는데 평소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정리수납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좌를 듣고 실습을 하고 여러 정리 노하우를 접하며 집안일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여러명이 협동심을 발휘하니 정리수납이 빠르게 되는 과정을 보며 기적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배운 노하우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봉사활동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쉬워요.

**두 분이 모두 올해 지역관리기업(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이선진

주민기술학교 참여 후 협동조합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협동조합 얘기를 들으니 공동체를 지향하는 저에게 딱 맞는 구조였어요. 저에게 혼자하라는 것만 못했을 거예요. 혼자보다는 재능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며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란 기대가 커요. 지금은 5명 정도가 마음을 모았지만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주민기술학교에 참여했던 다른분들에게도 같이하자고 손을 내밀어 볼 생각이예요.



박혜선

정리수납 2급을 따고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도 하면서 자원봉사도 함께 병행하고자 하니 협동조합이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주민기술학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으신 분들도 협동조합을 준비한다고 해서 함께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죠.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비슷해서 시너지가 날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며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하는 협동조합의 상은?**



박혜선

수익 창출과 자원봉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선진

정리수납에서도 제로웨이스트를 구현하고자 해요. 가능하면 새로 사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걸 활용하는 걸 지향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생활용품 만드는법을 배워서 정리수납 과정에서 가르쳐줘도 좋을 듯해요. 집에서 우울할 때 식물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데 우리가 정리수납 하러 가면서 식물을 집에 선물해주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정리수납의 경우 전문가가 와서 대신 해주는 분위기인데, 고객 스스로 정리수납에 참여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점검해 주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선진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조직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니 설립에 속도가 붙지 못해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박혜선

앞서 얘기한대로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우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어요. 자원봉사도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정리수납 자원봉사를 해볼까 해요.

### 용산구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나요?



이선진

모임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게 많은 도움이 돼요. 지금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 지금처럼만 지원해주길 바래요.



박혜선

정리수납 일을 하러 가면 물품 기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물건을 되팔아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런 기부처를 연계하거나, 바자회를 열 경우 장소 제공을 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면 좋겠어요.

### 향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요?



이선진

협동조합을 통해 오히려 제가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면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면 행복할 거 같아요.



박혜선

정리수납 일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이 힐링되기 때문이에요. 저의 작은 보탬이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걸 보며 매일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거고 그렇게 같이 성장해가길 바랍니다.

# 10 | Platform

## 공동판매장

<공동판매장 기사>

### 용산구, 행복중심생협과 맞손 잡아 공동판매장 마련

용산구 효창원로 행복중심용산생협에 위치  
“온·오프라인 장터 및 공동브랜딩도 추진할 계획”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행복중심생협과 공동판매장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매장은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행복중심용산생협에 위치했다. 센터는 입점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적기업 어시스타가 공동판매장 디자인 및 제작을 맡았고 운영은 행복중심용산생협에서 전담한다. 현재 공동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은 다사리협동조합, 톡투미다밥협동조합, 사회적기업 29일, 두시에코협동조합, 자활기업 더 플랜트, 사회적기업 송지, 해방촌니트협동조합,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등 총 8개다. 다사리협동조합은 안전한 식문

화 공동체 추구를 목표로 우리 전통장을 연구·생산하는 기업이다. 공동판매장에는 전통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내놨다. 톡투미다밥협동조합은 이주 여성자립 지원을 목표로 동남아 음식 밀키트를 만든다. 공동판매장에서는 소스 세트와 태국 쌀과자 세트를 판매한다. 사회적기업 29일은 반값 생리대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용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공동판매장에는 생리대와 여성청결제를 내놨다. 이 밖에도 니트, 매듭공예 액세서리, 수제 과일청, 천기저귀 등이 진열됐다. 조정옥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동판매장 구축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장터 및 공동브랜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운넷=박성빈 인턴 기자 qkzmsis@hanmail.net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용산구의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 비전

-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목표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정체성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및 확산

## 주요사업

- 센터 운영 및 주체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확산 및 협업 전략 구축
- 사회적경제 DB 구축 및 상담
-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실적 조사
-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
-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서비스
- 레벨업 밀착지원
-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 현 황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150	35	7	99	7	2

## ■ 35개 업체(인증 사회적기업 21개,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연번	구 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오 피 스 메 카 ( 주 ) ( 김 서 진 )	- 재생토너 제조 판매 - 잉크 토너 전산용품 복사용지 등 판매	인 증
2		( 주 ) 레 드 스 톤 시 스 템 ( 박 치 영 )	- 컴퓨터, 모니터 등 제작 · 판매	
3		( 주 ) 송 지 ( 황 영 희 )	- 친환경 천기저귀, 침구류 세탁대여사업	
4		사회적협동조합인사랑케어 ( 김 미 선 )	- 노인재가장기요양 사업 - 노인돌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5		A s s i s t a ( 주 ) ( 정 진 성 )	- 친환경 전시 행사 프로젝트	
6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김 연 설)	- 폐자전거 수집 및 수리, 판매 - 관내 자전거 이동수리	
7		( 주 ) 샤 룬 푸 드 ( 김 성 우 )	-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사업	
8		예 술 과 마 음 ( 이 상 호 )	-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사업	
9		(주) 상 상 철 우 리 ( 신 상 철 )	- 퇴직자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10		숲 에 인 ( 주 ) ( 황 경 선 )	- 산림보전사업 및 숲해설가 양성 등	
11		(주) 드 림 트 리 빌 리 지 ( 이 성 교 )	- 실용음악 교육서비스	
12		(주) 체 험 팩 토 리 ( 임 량 혁 )	- 체험교육, 학술연구용역	
13		(주) 지 오 스 캔 ( 기 정 석 )	- 지반조사, 물리탐사, 자원조사관련 기술용역서비스, GPR탐사 등	
14		( 사 ) 정 가 약 회 ( 천 재 현 )	- 국악공연	
15		( 주 ) 숲 푸 드 ( 신 은 경 )	- 도시락 제공사업	
16		(주) 박 요 셉 벨 ( 박 요 셉 )	- 공공기관 사내 카페 운영	
17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 심 양 옥 )	- 운수업	
18		(주) 한 국 갭 이 어 ( 최 다 영 )	- 해외봉사,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진로	
19		(주) 2 9 일 ( 홍 도 겸 )	- 반값 생리대 판매사업	
20		( 주 ) 드 림 미 즈 ( 천 선 아 )	- 여성중심 교육플랫폼, 출판사업	
21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안 혜 경 )	-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번	구 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비고
22	지역형 예비 (서울시)	두 시 에 코 디 자 인 ( 김 자 경 )	- 광고, 상품디자인 관련 제조 판매	예 비
23		(주) 다 른 도 민 ( 조 경 민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4		기 분 좋 은 큐 엑 스 ( 황 상 훈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5		(주) 트 래 쉬 버 스 터 즈 ( 광 재 원 )	- 축제, 행사장등 다회용기 대여	
26	부처형 예비 (고용노동부)	(주)사 람 에 게 배 우 는 학 교 ( 정 상 근 )	- 청소년진로교육대행, 교육및컨설팅	
27		(주) 더 스페이스 프랜즈 ( 김 현 옥 )	- 다문화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28		두근두근(Bounce Bounce) ( 조 정 혜 )	- 도시재생지역내에서의 갈등관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서비스	
29		(주) 크 래 프 트 콤 바 인 ( 이 기 용 )	- 업사이클 관련 제품 디자인 제조 및 교육	
30		(주) 몽 작 소 프 로젝트 ( 이 찬 영 )	- 음악 관련 교육 행사 및 공연 기획	
31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 남 종 려 )	- 서점, 복합 문화공간	
32		(주) 인 디 씨 에 프 ( 박 정 화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33	부처형 예비 (문체부)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 황 혜 원 )	- 역사문화해설 지역사 교육 및 콘텐츠 개발	
34		(주) 옴 니 상 아 트 ( 이 동 )	- 문화, 예술관련 제조업	
35	부처형 예비 (국토교통부)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 연 이 영 범	- 도시문화와 역사 보존, 창조	

#### ■ 마을기업 : 7개 업체(예비1)

연번	업체	사업 내용	비 고
1	행복중심 용산생협 (박태정)	생협매장 운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2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이우경)	되살림협동조합, 마을쉐어링센터 운영	협동조합 기본법
3	우리나눔 협동조합 (이수경)	반찬, 도시락 판매·배달	
4	다사리 협동조합 (류호준)	전통장 제조판매	
5	단꿈한지공방 (김용삼)	취약계층 한지공예 교육을 통해 한지 장인 양성	협동조합
6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한동화)	주민이 주도하는 용산지역의 낡은 주택 수리 개축	협동조합
7	(예비)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김정연)	역사 마을 브랜드화	협동조합

■ 협동조합 : 99개 업체 <협동조합 기본법>

연번	명칭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1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김신동	연구·조사사업 / 정책개발사업 / 교육훈련사업 / 출판사업 / 학술 및 회의활동.	
2	이거해방협동조합	이세원	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및 판매사업, 교육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VR, AR 콘텐츠제작업 등	
3	봉제디자인이음협동조합	이상태	패션의류,잡화제조 및 임가공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패션봉제 기술인 양성사업,패션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등	
4	우리상포장례협동조합	김안태	상포서비스	
5	교육협동조합온지곤지	남종려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기획사업 및 교육서비스사업	
6	온나라행복드림플러스 협동조합	박광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 사업	
7	깨끗한 마을문화 협동조합	유길상	마을문화 관련 사업시설관리, 마을문화 관련 도시재생, 공간관리 사업 등	
8	한국비영리회계프로그램 사업자협동조합	안재영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사업	
9	실버누리협동조합	안상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 및 서비스제공 관련 사업 노인교육사업	
10	인문협동조합삼인행	남종훈	한문고전대중화사업 한문교육기관지원사업	
11	해방촌니트패션협동조합	김종호	니트제품 공동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사업	
12	단꿈협동조합	김용삼	한지공예 생산 및 교육	
13	두시에코디자인협동조합	김자경	친환경 재활용 가능 상품 생산 및 친환경 캠페인	
14	SLC협동조합	이상순	연료전지발전사업, 건설업, 무역업 등	
15	그린허그협동조합	강보경	건강식품 생산 및 온라인 판매사업	
16	전자영상음향협동조합	박병창	유통, 무역, 브랜드 마케팅 사업	
17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한동화	집수리, 공동주택사업	

연번	명칭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18	후암신시장협동조합	김종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	
19	용산문평산뫼박는마을학교협 동조합	권혁문	조합원 공동 물자 가공 생산, 정비사업, 평생학습 사업 등	
20	신계동철도주민중심도시재생 협동조합	정금임	신계동 철도부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및 은퇴자마을 조성	
21	서치연치과네트워크협동조합	계용신	의료장비 및 소모품의 공동구매 사업	
22	관광연구협동조합	류광민	학술 연구, 용역 교육, 정보제공, 출판사업	
23	아무나건축주협동조합	백인화	사회주택 공급사업	
24	50플러스명강사협동조합	박창보	강사 양성 사업	
25	전국노인장기요양사업자 협동조합	송정임	장기요양 및 노인사업	
26	미래혁신교육체험교사 협동조합	이경자	여성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27	서울키즈패션협동조합	정효식	아동복 제조 아동용품 온라인 유통사업	
28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이준형	도시재생연구 사업, 도시재생 모델개발 및 적용사업, 건축사 및 건축서비스 관련 사업	
29	용산전자랜드컴퓨터협동조합	김영우	컴퓨터 유통 판매 사업	
30	한국건축2064협동조합	오상헌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건축관련 행사기획	
31	102문화디자인협동조합	정경원	문화, 관광, 디자인 등 기획 및 컨설팅사업 전통시장, 원도심 등 도시재생 및 디자인사업	
32	협동조합천주교 서울우리농한강	김정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33	힐링마더협동조합	김혜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치료 교육 사업	
34	비팩협동조합	박동일	농수산물 유통사업, K-food사업, 이동통신기기 수리업 및 중고기기 유통업	

연번	명칭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35	한국커피무역협동조합	최치훈	커피 무역 사업	
36	행복한공간협동조합	김종유	집수리,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37	야리끼리협동조합	김대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8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	김연설	자전거 수리 및 재생 사업	
39	톡투미다밥협동조합	호지완	도시락 및 케이터링 사업, 요리문화사업	
40	한국자동차정보센타협동조합	박미정	자동차 매매업 및 경매장업	
41	엠피쿱협동조합	이재승	식품, 생활용품,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	
42	에스에이(SA)결혼중매 협동조합	김병식	1. 결혼중매사업 2. 결혼과 관련한 시설, 용품, 서비스의 공급 및 중개 또는 컨설팅 등 부대사업	
43	마당협동조합	변한식	서울불고기 명품브랜드사업	
44	에코푸드협동조합	이기훈	친환경 학교 단체 급식사업, 카페테리아 운영	
45	서울드림부동산투자협동조합	공영우	부동산매매, 임대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컨텐츠개발사업	
46	언론협동조합NK투데이	이채언	인터넷신문발행사업 방송출판사업	
47	한양청소및건물관리협동조합	최봉실	청소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	
48	한국아이티판매협동조합	라인업 시스템(주)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49	전국종합무도인협동조합	최덕수	무도인지도자 양성, 무도회관 건립	
50	아이티기업협동조합	이태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선통신장치 제조	
51	클홈협동조합	임은숙	공예품 제조업	
52	히울협동조합	박소영	북카페 운영 및 출판업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53	대안건축공간협동조합	김용주	대안적 건축공간 기술개발 및 연구	
54	원효로문화상공인협동조합	정희수	카페 운영, 문화 행사·프로그램 운영, 잡지 발행 등	
55	3D상상프린팅협동조합	성원모	제조, 판매업	
56	우리모두가행복한용문시장 협동조합	안효숙	농수산물 도소매업	

연번	명칭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57	한국자연요법치유사협동조합	이승웅	교육 서비스업	
58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박예영	미디어 서비스업	
59	전국행정사협동조합	하경식	서비스업(행정사업)	
60	대한민국서화미술인협동조합	박용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	
61	강섬유협동조합	김연순	강섬유, 연강선재, 철선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	
62	오방살롱협동조합	배해일	음료 및 식품 판매	
63	우리나눔협동조합	이수경	반찬가게 사업, 도시락 배달 사업	
64	작은혼례운동협동조합	진민자	작은혼례문화 보급, 웨딩컨설팅, 인력공급 및 혼례 예식사업	
65	지티지(GTG)외식업협동조합	권현	외식업 프로젝트, 예비 외식업 창업지원 및 교육, 외식업 레시피 개발, 식자재 개발 유통사업	
66	상일컨설팅협동조합	이상일	경영컨설팅	
67	다사리협동조합	류호준	장제조 및 판매사업	
68	특농신용산협동조합	엄영길	황금상황버섯 재배 및 판매	
69	정보디자인협동조합	곽승원	정보디자인 서비스 및 교육훈련	
70	정치경제연구소협동조합	유명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71	에스아이피씨에이(Sipca) 협동조합	임무상	PC부품	
72	한류여행사협동조합	박정수	한류여행상품개발	
73	우리피씨방협동조합	이상화	PC운영 컴퓨터 도소매	
74	한반도관광협동조합	조항원	칠보산 관광 등	
75	제인앤케이스퀘어협동조합	정진국	지하상가 공동판매	
76	더코리아뉴스협동조합	박종철	외교, 통일분야 심도있는 취재, 사설 게재	
77	한반도교육취업협동조합	이기준	대안학교 커리큘럼 제공 등	
78	웰링피아협동조합	고영수	좋은 식품구입	

연번	명칭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79	협동조합한국장애인공동체	안종영	장애인 자활사업	
80	한국친환경약초치유마을 협동조합	조우분	약초재배농민 권익증진	
81	용산파크자이관리 협동조합	신순성	아파트관리 갈등조정	
82	국방신문협동조합	김한규	안보관련 신문출판	
83	소셜허그협동조합	석보라	디자인전공자 유휴인력 활용사업	
84	한국가두전시판매업협동조합	권순일	노점상인 권익증진	
85	한국다문화협동조합	정동주	다문화가정 홍보 등	
86	한국재봉기기사상공인 협동조합	정재근	재봉업 진흥	
87	협동조합인재개발뱅크	남기형	일자리창출위한 자활사업 등	
88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유대현	광고간판업자의 공동이익실현	
89	한국신교협동조합	차옥덕	신교활동 활성화	
90	민간조사관및경비경호사업 협동조합	이홍	민간조사원, 경비경호사 권익증진, 국내 민간조사 및 경호산업 정착화	
91	피어라풀꽃협동조합	정안두	도농직거래	
92	다같이놀자공동육아협동조합	이길원	문턱낮은 어린이집 사업	
93	마케팅유통협동조합	고현	중소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94	법률소비자협동조합	성제훈	법률지식 능력 공유	
95	용산마을신문협동조합	홍승현	주민이 직접 만드는 신문	
96	협동조합마을공방사이	이우경	원목가구 제조, 폐가구 재생 등	
97	함께돌봄 협동조합	이경락	치매 인식개선 및 돌봄의 질향상, 사회적기업 교육 및 컨설팅	
98	위인유니온 협동조합	정상규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99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 협동조합	안태홍	목공사업, 건축물 보수 및 관리사업, 통신판매 사업 등	



#### ■ 사회적협동조합 : 7개 업체

연번	명 칭	대표자	주요 목적 사업	비고
1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최현정	트라우마 치유사업	
2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강대성	지역사회컨설팅 및 교육, 홍보	
3	용산역사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설혜영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문화해설사업	
4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정방	학생복지 증진사업, 학생교육 지원사업	
5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이은주	민주 시민교육	
6	사회적협동조합 사랑해 주오	이윤수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설립 운영	
7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노인돌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 자활기업 : 2개 업체

연번	명 칭	대표자	주요 목적 사업	비고
1	더 플랜트	정영임	커피, 주류, 제과류 등 판매	
2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노인돌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발 행 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펴 낸 일** 2021년 6월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애비뉴 B1  
**전 화** 02-318-5200  
**팩 스** 02-318-5203  
**홈페이지** [www.yse.or.kr](http://www.yse.or.kr)  
**기 획**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씨앤드  
**디 자 인** 이엠실천 02-875-9744

Copyright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용사+ 사회적+ 경제+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www.yse.or.kr](http://www.yse.or.kr)